

2020년 7월 22일(수)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 1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 2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 3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 4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 후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 뿐

- 1 내 평생 소원 이것 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 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 2 꿈 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어나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 뿐 일세
- 3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 4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 5 살 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해 아끼세  
온 몸과 맘을 마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7월 23일(목) 기도 담당 : 노정남 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장지훈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찬 송 ..... 91장 ..... 다 함 께

기 도 ..... 김영대 집사

성 경 봉 독 ..... 여호수아 2:8~11 ..... 인 도 자

설 교 『누구편에 설 것인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상학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함 께

찬 송 ..... 450장 ..... 다 함 께

축 도 ..... 설 교 자

<여호수아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7월 21일(화)	수 1:5~9	믿음의 힘이 시작되는 지점
7월 22일(수)	수 2:8~11	누구편에 설 것인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0년 7월 22일(수)

###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변함없이 미쁘시게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열어 주신 이 날을, 이처럼 찬송하며 말씀 앞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 또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라합처럼 우리도 우리가 속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발견하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새문안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감사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셨듯이, 이후로도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참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심 가운데 허락하신 아름다운 새 예배당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 그 때에 온전히 헌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모든 교역자,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은혜의 빛을 비취주시며, 새문안의 모든 성도들이 누구보다 우리 주님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멈춰있는 가정과 학교, 일터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주의 몸 된 교회가 속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셔서, 이들을 통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구하는 현재의 혼란과 혼돈, 또한 어둠 가운데 친히 은혜와 은총의 빛을 비취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